

한의학 고문헌의 주제 분류와 자료적 특성

-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를 중심으로 -

이 정 화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Subject Classifi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Old Oriental Medicine Literature

*Focused on Web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The present study examined subject classifi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old Oriental medicine literature focused on Web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For this, we reviewed how subject classification is applied to Oriental medicine in the codified literature classification table and, based on the results, examined how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used in libraries. Second, subject classific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old Oriental medicine literature were studied focused on Web services of Oriental medicine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and related problems and solutions were suggested.

I. 머릿말

‘학문’이란 지식을 체계화한 것을 말함으로 연관이 있는 여러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모

여서 하나의 학문영역을 이루게 된다. 학문분류나 동·식물분류 등은 상위개념을 논리적·체계적·계층적으로 細區分하는 행위이다. 학문분류는 개념(학문)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세분하여 전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문헌분류표가 될 수 없고 그것에 몇 가지 기본요소가 더 추가되어야 문헌분류라 할 수 있다.

문헌분류의 정의를 문헌정보학용어사전과 ALA(미국도서관협회)용어집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① 체계적으로 편성된 분류표에서 한 문헌의 내용·주제·형식에 일치하거나 유사한 분류기호를 찾아 배정하는 행위 ② 도서를 분류하기 위하여 조직된 분류표 ③ 데이터처리에 필요한 기록코드화의 체계

두 번째, ALA(미국도서관협회)용어집에는 어떤 원칙, 개념, 목적에 따라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된 유의 체계(series of class)를 말하고 도서관, 문서관에서는 기록물을 미리 宛案된 파일체계에 따라 구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정의로는 문헌분류표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학문분류표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 지되 다음에 열거된 항목들이 효율적·유기적으로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헌분류란 도서관에 입수되는 문헌의 배가위치를 결정하는 동시에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제나 형식의 유사성 또는 특정 원칙이나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행위나 과정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한의학 고문헌의 주제 분류와 자료적 특성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문화되어 있는 문헌 분류표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주제 분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검토한다. 둘째 이를 근거로 한의학 고문헌의 주제 분류와 자료적 특성을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의학 분야 분류 사례

한의학 분야의 분류표는 별도의 표준화된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학문에 적용되는 문헌정보학적 측면의 성문화된 분류표만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헌 분류체계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DDC와 우리나라의 십진 분류표인 KDC의 분류표에서 한의학을 어떻게 주제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국가과학기술분류표에서의 한의학 분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정)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도서관에서는 한의학 관련 문헌을 어떤 위치에 배열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희대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의 한의학 분류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KDC와 DDC에서의 한의학 분류

< KDC 분류표에서의 한의학 >

KDC 분류표	KDC에서의 한의학 분류
519 한방의학	- 국내 도서관이나 자료실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10진 문헌 분류표인 KDC에서는 전체 의학 분류기호 510綱 중 519目に Oriental Medicine(한방 의학)으로 분류되어 있다.
519.1 한의 기초학	
519.2 한의치료학	
519.3 각과 한의학	
519.7 한의 위생학	
519.8 한의약학	
519.9 침구학(鍼灸學)	

< DDC 분류에서의 한의학 >

DDC 분류표	DDC에서의 한의학 분류
610 의학	- 구미에서 많이 쓰고 있는 DDC는 615.882(Folk Medicine)와 615.89 (Primitive, ancient, medieval remedies)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나 분류체계가 현재의 한의학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대하도서관에서도 DDC분류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95 한방	
.9501 한방기초학	
.9502 한방치료학(약, 심리, 민간요법)	
.9503 침술 → 615.892 지압 → 615.822	
.9504 위생	
.9505 한의약학	
615 약학	
.822 지압	
.85154 음약치료	
.854 식이요법	
.892 침요법. 침술	

2. 국가 과학기술분류표의 한의학 분류

국가 과학기술분류표의 한의학 분류(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정)의 기본방향은 첫째, 모든 과학기술활동을 포용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분류 체계를 지향하며 국제적인 과학기술분류체계를 작성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에도 한의학 관련 분류체계가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국제적인 과학기술분류체계에 바탕을 두고 국내 과학기술 발전의 특이성을 반영 셋째,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분야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포괄성, 배타성, 유사성, 규모성, 보편성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넷째, 각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사용 중인 각종 과학기술분류표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다섯째, 분야별 중복은 소분류에서만 허용하되 이해를 돕도록 상호참조(Cross Reference)를 표기한다.

< 국가 과학기술분류표에서의 한의학주제 분류표 >

국가 과학기술분류표	국가 과학기술분류표의 한의학 분류
M 보건 · 의료 M6. 한의학 M61. 한의학치료기술 M62. 한의학적 예방 · 건강증진기술 M63. 한의학 진단 · 지표 · 평가기술 M64. 한약 · 한약제제 M65. 침구관련 진단 · 치료기술 M66. 한방의료기기 M67. 한의학 정보화 기술 M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한의학 .854 식이요법 .892 침요법. 침술	- 이 분류체계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체 주제를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체제로 구성하되, 대분류는 영문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중, 소분류는 10진법체계를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 - 한의학 관련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대분류는 M, 중분류는 M6으로 보건 · 의료, 소분류는 M6을 1~0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3. 연세대학교 도서관과 경희대학교 도서관의 한의학 분류

< 연세대학교 도서관 한의학 분류 >

분류원칙	연세대학교의한의학분류
619 한의학 619.01이론, 사상 619.1 의경(醫經), 고전적 의학총론 619.2 장부학(臟腑學), 경락학(經絡學) 619.3 병증학(病證學), 진단학(診斷學) 619.4 약학(藥學), 본초학(本草學) 619.5 의방(醫方), 방약(方藥) 619.6各科(各科) 619.7 침구학(鍼灸學) 619.8 양생법(養生法), 장수법(長壽法) 619.9 마우의학(馬牛醫學)	- DDC 분류표를 기본으로 하되 원 분류표에는 실험의학으로 되어있는 619에 임의로 한의학을 분류하고 이를 세분한다. - 1910년 이후에 현대어로 쓰인것은 직접 연대순 도서기호를 주고, 그 이전의 것은 저자명에 의해 자모순 구분을 한 다음 연대 기호를 쓴다. - 이번호들은 고서집서에서만 쓰고 신서집서에서는 쓰지 않는다 예) 수의학일반 636.089, 마의학 636.1089

< 경희대학교 도서관 한의학 분류 >

경희대학교도서관분류	경희대학교의 도서관 세부 분류
619 한의학 619.01-.09 표준구분 619.1 기초이론(이론체계) 619.2 위생 및 보건 619.3 임상학 619.4 침구학 619.5 약학 619.6 내과 619.7 외과 619.8 오관과 619.9 부인, 소아과	619 .01 철학, 이론(Philosophy and theory) 한의학의 현대화, 동서양의학의 결합 .04 綜合醫書 景岳全書, 古今醫統大全, 東醫寶鑑 등 .09 의사학(醫史學) 및 각국 한방의료 사정 .091 한 국 .0911 남 한 .0912 북 한 .092 중 국 .0922 대 만 .093 일 본

<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분류표 비교 >

경희대학교의 한의학 분류표	연세대학교의 한의학 분류표
619 한의학	619 한의학
619.01-.09 표준구분	619.01이론, 사상
619.1 기초이론(이론체계)	619.1 의경(醫經), 고전적 의학총론
619.2 위생 및 보건	619.2 장부학(臟腑學), 경락학(經絡學)
619.3 임상학	619.3 병증학(病證學), 진단학(診斷學)
619.4 침구학	619.4 약학(藥學), 본초학(本草學)
619.5 약학	619.5 의방(醫方), 방약(方藥)
619.6 내과	619.6各科(各科)
619.7 외과	619.7 침구학(鍼灸學)
619.8 오관과	619.8 양생법(養生法), 장수법(長壽法)
619.9 부인, 소아과	619.9 마우의학(馬牛醫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도서관 모두 DDC를 원용하고 있으나 같은 주제로 서로 다르게 주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세부분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경희대학교의 한의학 분류표에서는 619.6 내과, 619.7 외과, 619.8 오관과, 619.9 부인, 소아과 등으로 세분함으로써 서양의학의 분류체계와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의 한의학 분류표에서는 이 분야를 619.6各科(各科)라 하여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마우의학(馬牛醫學)의 경우 연세대학교에서는 619.9 마우의학(馬牛醫學)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경희대학교의 경우 이와 관련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610.5 약학에 동물약을 610.5274로 분류하고 있을 뿐 한의계에서 한의학의 범주로 넣고 있는 마경이나 유경 관련 문헌과 자료들이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연세대 도서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619.4 약학(藥學), 본초학(本草學)의 경우 경희대에서는 619.5 약학 619.51 본초학을 배열하고 있어 분류번호는 서로 다르나 약학에 본초학을 포함시킨 분류는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서 한의학 주제를 분류할 때 표준분류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도서관마다 개별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임의로 만든 분류표가 한의학 관련 모든 주제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차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III.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에서의 분류 체계와 그 특성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에서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웹서비스를 통해 한의학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크게 고문헌의 주제 분류와 치료기술의 주제 분류로 분리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도서관의 주제 분류와는 달리 쉽

진분류를 이용한 기본구속력 없이 별도로 자료의 체계와 수록된 내용의 검색과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의학 고문헌 관련된 분류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 서비스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서비스체계와 분류체계도 변화와 수정을 거듭해오며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분류 안이 확정되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분류 안 선정 과정 >

1안	2안	3안	4안
1. 醫經類	1. 醫經醫論類	1. 基礎理論	1. 基礎理論
2. 醫論類	2. 診斷類	2. 診斷脈法	2. 診斷/脈法
3. 傷寒金匱類	3. 本草類	3. 本草藥物	3. 本草藥物
4. 診斷類	4. 經驗方類 / 단방포함	4. 經驗處方	4. 經驗方書
5. 本草類	5. 臨床綜合類	5. 綜合醫書	5. 綜合醫書
6. 方書類	6. 瘟病瘡疹類 / 전염병	6. 防疫/救急	6. 防疫/救急
7. 臨床綜合類	7. 婦人類	7. 婦人 / 小兒	7. 婦人 / 小兒
8. 瘟病瘡疹類	8. 小兒類	8. 四象體質	8. 四象體 質
9. 婦人類	9. 外傷科類	9. 推拿 / 外傷	9. 皮膚 / 外傷
10. 小兒類	10. 眼耳鼻咽喉科類	10. 皮膚/五官	10. 鍼灸經絡
11. 外傷科類	11. 鍼灸推拿類	11. 鍼灸經絡	11. 養生食餌
12. 眼耳鼻咽喉科類	12. 養生食治類	12. 養生/食餌	12. 醫史筆記
13. 鍼灸推拿類	13. 醫史筆記類	13. 醫史筆記	13. 韓醫學雜誌
14. 養生食治類	14. 其他亡失類	14. 韓方雜誌	14. 其他
15. 醫史筆記類		15. 其他	
16. 其他亡失類			

<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 서비스 고문헌 분류-2006년 현재 >

한의학 고문헌 주제분류	주요 내 용
1. 基礎理論	內難醫經, 醫經註釋, 基礎理論, 後世醫論, 傷寒金匱
2. 診斷/脈法	脈法, 四診類
3. 本草藥物	本草, 藥性歌, 現代藥理
4. 經驗方書	肘後方, 太平聖惠方, 千金方, 聖濟總錄, 醫家必用, 經效方, 單方類
5. 綜合醫書	醫方集略, 東醫寶鑑, 鄉藥醫書, 方藥合編,
6. 防疫/救急	瘟熱病論, 瘡疹
7. 婦人 / 小兒	婦人大全良方, 及幼方, 小兒醫方
8. 四象體質	體質醫學, 臨床/醫論
9. 皮膚 / 外傷	外傷科類, 眼耳鼻咽喉科類
10. 鍼灸 經絡	鍼灸銅人, 推拿按摩
11. 養生 食餌	養生導引, 食餌食療, 家庭救護, 飲食調治
12. 醫史筆記	歷史說話, 醫學關聯, 醫案醫話, 醫學問答, 醫哲學類, 醫學論評
13. 韓醫學雜誌	韓方雜誌, 醫藥月報, 朝鮮醫學界, 東方醫藥, 東醫報鑑 등
14. 其他	전문의학서는 아니지만 의학 관련내용이 포함된 것 法醫書, 獸醫書, 東西醫學類, 亡失類, 雜著類

<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 서비스 고문헌 중분류 >

대분류	중분류
기초이론	의경(3) 의론(11) 주석(3)
진단 / 맥법	진단(4) 맥법(4)
본초약물	본초(18) 약성가(1)
경험방서	경험방(26) 단방(7)
종합의서	입문서류(1) 종합처방(34)
방역 / 구급	방역(23) 구급(8) 예방의학(1)
부인 / 소아	부인(8) 소아(4)
사상체질	사상의학(3) 임상체질(0)
피부외상	피부(1) 외상(3) 안과(3) 이비인후과(0)
침구경락	침구(6) 경락(5) 추나(0)
양생 / 식이	양생(9) 식이(5)
의사필기	의사(3) 문답(28) 의안(4) 자료(8) 문집(2)
한의학잡지	잡지(12)
기타	법의학(3) 수의학(3) 동서의학(7) 잡저(10) 구황(3)

※ 괄호는 해당주제의 분류에 해당하는 문헌 수임

위와 같은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 서비스 고문헌의 분류한 실례를 살펴보고 분류체계와 자료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基礎理論 - 의경, 의론, 주석

: 황제내경, 난경, 상한론을 비롯한 전통적인 의학경전류와 후대의 주석서 그리고 이를 부연한 역대의학자들의 의학이론서가 주축을 이룬다. 병원, 장상, 운기, 병기, 치법 등 기초이론에 관한 문헌을 포괄한다.

- 內難醫經, 醫經註釋
- 基礎理論 : 病源, 醫易, 運氣, 藏象 등
- 後世醫論: 傷寒金匱

2. 診斷/脈法 - 진단, 맥법

: 전통적인 한의학 진단법인 四診법을 중심으로 察病辨證과 감별진단법에 관한 전문적인 문헌을 포괄한다. 특히 전통맥법을 다루는 맥학서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한의진단학 전문서라 할 수 있다.

- 脈法 : 纂圖方論脈訣集成, 仁齋直指方論醫脈真經

- 四診類 : 察病諸症, 察病用藥

3. 本草藥物 - 본초, 약성가

: 전통 한방약물학이라 할 수 있는 본초서에는 본초학만의 계통성을 갖고 있으며, 선후 관계를 갖고 있다. 또 후대에 이르러 경험지식에 의존한 단일약초를 중심으로 본초단방이 성행하였으며, 재료적 측면만이 주요대상인 현대약물학과는 차별화된 특유의 한의약학을 형성하였다. 또 실용적인 본초지식을 쉽게 암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성가가 크게 유행하였다. 최근세 일부 자료에서는 현대약물학적 시각에서 전통 본초학을 접목시켜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 本草 : 湯液本草, 食物本草, 本草類涵要領
- 藥性歌 : 損益本草, 入門醫鑑本草總括
- 現代藥理 : 鮮漢藥物學

4. 經驗方書 - 경험방, 단방

: 한국본 한의서 중 가장 예가 많은 유형의 분류주제이다. 자신의 의학지식과 학습된 문헌지식을 잘 조합하여 엮은 것이 대부분이며,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의가들의 생각과 경험 지식을 문자로 표현하기 쉬워지면서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또 많은 수가 전문적인 의원이 아니고 유학적 학문기반을 가진 사대부 계층에 의해 작성된 것도 흔하다.

- 肘後方,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醫家必用
- 四醫經驗方, 經效方, 丹谷經驗方抄
- 單方類 : 單方備要, 單方藥, 本草附方便覽

5. 綜合醫書 - 입문서류, 종합처방

: 전문의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집필한 의방서로 의학이론, 병인병기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치법과 경험, 가감처방, 침구, 단방요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이들 문헌은 교육과 열람, 참고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용도를 갖고 있었으며, 연구성과, 의학적인 논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헌마다 각자 상이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복합적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

- 醫方集略 : 編註醫學入門, 名方類證醫書大全

- 東醫寶鑑 : 醫鑑重磨, 廣濟秘笈, 濟衆新編,
- 鄉藥醫書 : 鄉藥集成方, 醫林撮要, 靑囊訣,
- 方藥合編 : 醫方合編, 醫方活套, 漢方醫學指南

6. 防疫/救急 - 방역, 구급, 예방의학

: 급성 전염병과 응급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 시대마다 담겨진 내용과 대상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또 의학발전에 따라 질병의 개념과 그에 대한 처치법이 달라지는 경향이 심하다. 전통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는 가장 변화가 많은 주제라 할 수 있다.

- 瘟熱病論 : 分門瘟疫易解方, 溫疫論, 簡易辟瘟方
- 瘡疹 : 治疹指南, 瘡疹集, 痘瘡集要

7. 婦人/小兒 - 부인, 소아

: 고대의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전문화된 영역으로 독립된 분야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일반 성인에 비해 치료가 매우 난해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생리, 병리로부터 진단, 치법, 처방에 이르기까지 가장 특화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현대 한의학에서 거의 다뤄지고 있지 않은 産科가 포괄되어 있다.

- 婦人大全良方, 達生編, 産方隨錄, 生産秘方
- 及幼方, 小兒醫方, 丁茶山小兒秘方

8. 四象體質 - 사상의학, 임상체질

: 가장 한국한의학의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은 체질의학에 관련한 문헌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였다. 다만 창안자인 이제마의 활동시기가 1세기 남짓한 시점이어서 대상이 많지 않으나 통일 후 생전의 주 활동무대였던 함경도 일원에서 다수의 문헌 자료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전이라 할 동의수세보원 이외에 의론과 임상경험, 변용처방들을 함께 수록한 종합류가 많다.

- 體質醫學 : 東醫壽世保元, 東醫壽世保元甲午舊本
- 臨床/醫論 : 普濟演說, 格致藁, 東武遺稿, 明善錄

9. 皮膚/外傷 - 피부, 외상, 안과, 이비인후과

: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외과영역과는 좀 구분되는 분야로 피부질환과 외과적 창상, 악성 종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른바 내과적 처치법의 대상이 아닌 질환을 망라하고 있다. 요법에 있어서는 약물치방과 침구, 외치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眼, 耳, 鼻, 咽喉 등은 단순히 내복치료가 어렵거나 외치를 겸해야할 외과적 치료영역으로 인식한다.

- 外傷科類 : 治腫指南, 外科精要, 醫腫金鑑
- 眼耳鼻咽喉科類 : 醫眼方, 銀海精微補, 目科一覽

10. 鍼灸經絡 - 침구, 경락, 추나

: 한의학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론과 치법을 다루고 있는 전문영역으로 고대로부터 독자적인 이론과 체계를 구성해 왔다. 한의학의 발전 과정에서 12경락과 장부학설 그리고 약물의 귀경학설이 결합되어 독특한 의학체계를 성립하였다. 인위적인 기혈순환과 운동효과를 결합한 고대의 도인, 안마는 후대에는 추나 혹은 정골요법으로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경락학설을 근거로 발전된 새로운 기법이라 할 수 있다.

- 鍼灸銅人 : 銅人經, 重刊神應經, 經絡學總論
- 推拿按摩 : 小兒推拿秘訣

11. 養生食餌 - 양생, 식이

: 고대에는 食醫라 하여 일반적인 질병치료 의학과 구분하였다. 약물의 방제구성 원리와 음식의 배합과 조리원칙이 오행에 동일한 기반을 둔데서 기원하여 의학의 일부야로 취급하였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식원성 질환과 과다섭취, 영양불균형, 운동부족, 무절제하고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만성대사성 질환이 폭증함에 따라 전통의학의 양생과 식치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養生導引 : 養生類要, 保養志, 退溪活人心法
- 食餌食療 : 食療纂要, 食醫心鑑, 四時纂要抄, 餌方
- 家庭救護 : 攷事撮要, 山林經濟, 胎教新記
- 飲食調治 : 閨閣叢書, 飲食知味方, 釀酒方

12. 醫史筆記 - 의사, 문답, 의안, 자료, 문집

: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의학관련 문헌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전문 의학사적 기술로부터 의학인물, 의학용어, 의안, 의학설화, 문집류, 필기류, 의학논평, 나아가 의학을 빗대어 기술한 문학, 철학적 기록과 기행문, 문답류 등이 수재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장 다양한 성격의 문헌이 들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 歷史說話 : 醫說, 歷代醫學姓氏, 壺山外史
- 醫學關聯 文獻雜記 : 宜彙, 濟生篇, 解惑辯疑
- 醫案醫話 : 錦囊, 丁氏經驗方, 谷青冗語
- 醫學問答 : 朝鮮醫答, 醫學問答
- 醫哲學類 : 鑿圃問答, 演小天地問答

13. 韓醫學雜誌 - 잡지

: 구한말 전통적인 의과고시가 폐지된 이후, 일제에 의해 의사의 자격이 박탈되고 한의학의 지위가 격하됨에 따라 자체적인 교육과 연구,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의학 잡지류는 일반적인 전문단체의 잡지나 순수 의학저널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 이후 한의사제도의 부활과 한의과대학의 설립 이전의 한의사제도, 한의학 교육, 학술활동을 연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문헌자료이다. 발행처는 한방단체나 의학원이 대부분이고 지방에서 간행된 경우도 많다.

- 韓方雜誌 : 醫藥月報 朝鮮醫學界, 東方醫藥

14. 其他 - 법의학, 수의학, 동서의학, 잡저, 구황

: 전문의학서는 아니지만 의학 관련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의학의 범주안에 모두 포괄한다. 법의학서, 수의학서가 대표적인 예이며, 그 외 동서 의학을 절충한 것이나 실전되어 원래의 모습을 알기 어려운 망실 문헌, 의학관련된 편람서나 의학상식류가 있다. 또 공식의료기관인 내의원이나 혜민원의 규칙이나 廳誌, 선생안, 의과방목, 의가 보첩류가 포괄되어 있다.

- 法醫書 : 新註無冤錄, 檢屍狀式, 審理錄, 檢要
- 獸醫書 : 馬醫方, 水牛經, 古本鷹鵠方

- 東西醫學類 : 東西醫學要義, 家庭救急方
- 亡失類 : 濟衆立效方, 新羅法師方, 鄉藥惠民經驗方
- 잡저 : 농서, 마경, 누판고, 사시찬요초

IV.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의학주제 분류를 위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분야(도서관 또는 과학기술)에 맞는 분류체계가 몇 가지 존재하나 아직은 일반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명분화되고 객관화 되어있는 기존의 분류표에 한의학 분야를 연계하여 원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한의학 분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대학도서관 모두 DDC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크게 619로 분류하고 한의학 관련 세부 분류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

한의학 관련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의학에서 원용되고 있는 분야별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시급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분류표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영입이 손쉽고 분류 전개가 자유롭다. 그럼으로 새롭게 발굴되는 자료에 대한 주제 전개가 용이하다. 때문에 주제적이고 자주적인 분류가 가능하며, 분류체계와 관계없이 색인어 검색에 의해 검색에 대한 정확율과 재현율도 높일 수 있다.

이 분류표는 도서관의 경우와는 달리 심진분류를 이용한 기본구속력 없고 전개에 연관성이 부족하게 됨으로 정확하고 원활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분류와 중분류의 학문 단위와 범위가 일정치 않아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하나의 문헌이 여러 주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류하기 난해하며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여야한다.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실제적인 개념으로 대분류와 중분류에 이어지는 세분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의정보 기초체제를 조성하고 정보화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의학 용어의 표준화와 시소러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하며, 한의학 분류체계를 표준화 성문화하기 위한 범 한의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인, 학생 및 의료현장의 이용자들이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분류안 마련하여 한의학 전반을 포괄하는 한의학 토털서비스 지향하기 위한 분류안 마련하도록 하여야한다.